

●일일스터디_표준안

서유진 / SBS / 2026.06.1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금값 무섭게 치솟더니...고점 찍고 6개월 만에 '뚝'	경제	주요뉴스
2	'캡틴' 손흥민, 체코전 선발 출격...축구대표팀 스리백 가동	세계	주요뉴스

(1)기사/뉴스요약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내 금값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g당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11일) 금 시세는 1g당 19만 8천60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한때 19만 6천 780원까지 밀렸습니다.

국내 금값은 올해 초 1g당 26만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상승세가 꺾이며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점과 비교하면 약 25% 하락한 수준입니다.

중동전쟁 초기만 해도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선호 현상이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는데요.

이에 가치가 오르고 있는 달러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국내 금값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g당 2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2)기사/뉴스요약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첫판에서 손흥민(LAFC)-이재성(마인츠)-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삼각편대를 앞세워 체코 격파에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릅니다.

킥오프 한시간여 앞서 공개된 홍명보호 선발 명단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통산 4번째 월드컵에 나서는 손흥민은 오늘 득점하면 대회 통산 4호 골을 기록합니다.

박지성, 안정환을 넘어 한국인 월드컵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섭니다.

이재성과 이강인이 공격 2선에서 손흥민의 뒤를 받치고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가 중원에 포진할 거로 보입니다.

홍 감독은 예상대로 지난해부터 갈고닦아온 스리백 수비 전술을 가동합니다.

이태석(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좌우 윙백을 맡고, 스리백 수비라인에는 이기혁(강원), 김민재(원현), 이한범(미트윌란)이 섭니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도쿄)가 씩니다.

핵심: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오늘(12일) 오전 11시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체코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른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소 힘겨루기 대회	두 마리의 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힘을 겨루는 한국의 전통 민속 경기로, 주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전승됐으며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	경주 산구의원	경북 경주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일제강점기인 1931년에 건립된 곳이다. 2026년 4월 13일 경상북도 등록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